

## \*\*일본현대건축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이일형\* / Lee, Yil-Hyung

#### Abstract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Japan is entering an entirely new phase in the second half of the 1980s. In the late 1960s, doubts began to be expressed about Modernism, which until then had been the recognized mainstream of architecture. There was much discussion, but it was only in the early '80s that an active debate was initiated concerning Post-Modernism. Today, however, matters have gone beyond this, and the situation appears particularly significant. The Japanese architecture world was hitherto understand to be fundamentally very different from its western counterparts.

There are several trends in current Japanese architecture which have still come out of the Japanese tradition of life, culture, region, climate itself. At the same time, stance of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start from a common basis in world's design stream which can be called Post-Modernism, Deconstructivism, Neo-Modernism. This study is aimed at analysi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n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키워드 : 일본의 현대건축, 전통건축, 지역적 특성

#### 1. 서론

고도의 기술·도시화·국제적 상업화가 만연하는 서구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모든 면에서는, 독특한 민족적 문화요소가 남아있다. 건축에서도 전통의 독특한 개념과 그 활용은 문화적 맥락 속에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요소들이 혼재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현대건축가들은 다양한 절충을 시도하면서, 그들의 전통적 건축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김용욱(金容沃)은 하버드대학교 엔칭연구소장인 두 웨이밍(杜維明)과의 대담에서 "현재 인류의 모든 문명은 세계화와 토착화라는 양면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과제는 동시적이고 변증적이며, 한국 사람들은 세계화의 허상만을 좇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화와 토착화라는 양면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모든 지역적 특수성이란 더 큰 범위의 지역적 전체 속에서의 상호연결관계 속에 용해되어 있으며, 또 그 용해되어 구별이 어려운 보편성(세계화)과 특수성(토착화) 속에 공유되어 있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깔려있다고 전제한다면, 이미 도래되어 있는 현대성

을 인정하고 전통에 의한 보완과 변화의 모색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서, 각 지역의 건축에 자연스럽게 아이덴티티(Identity)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地域的 特性)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현대건축에서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화의 수용과정에서 서구와는 다른 배경과 성장과정을 가져온 우리의 경우와 유사하며, 서구가 주도하는 세계적인 건축의 흐름과 변별력을 지니면서 그들의 전통에 근간을 둔 일본적(日本的) 표현(表現) 즉, 지역적 특성을 세계화하는데 성공한 건축사례로서 일본현대건축을 고찰해 보겠다. 또한 지리·역사를 비롯한 여러 면에서 우리와 관련이 많고 근대 이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건축에서,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으로 인하여 1930년대부터 시도돼왔던 일본적 표현이 성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의 일본현대건축을 분석해 보고 그 특성을 나름대

1) K.프래튼이 말한 바와 같이, "건축에 대해 전 세계의 모든 것이 획일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반대하는 이즘(Ism) 즉, 어떤 한정된 지역에 관계되는 건축 또는 건축가를 긍정하는 사고방식"으로서의 지역주의(地域主義)라는 개념에서, 지역적 특성이란 직접적으로 건축에 영향을 주며 동질성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오랜 기간에 걸쳐 어떤 지역의 자연환경·생활양식·건축재료·시공기술 등이 건축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의 좋고 나쁨을 떠나 개념적 접근에서부터 건축의장·상세 등의 표피적인 모방(模倣)에 이르기까지, 지역적 특성을 확대·해석하여 보다 많은 사례를 비교·분석하고자 했다.

2) 김성우, 建築에서의 傳統과 現代, 季刊 傳統과 現代, 1997년 가을호, pp.342-361

\* 정회원,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 본 연구는 1999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로 정리함으로써, 한국현대건축의 한국적 표현에 대한 방법론 모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2. 일본현대건축의 동향

### 2.1. 서구 근대건축의 도입

1868년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구건축이 도입되기 시작한 일본은, 정부주도로 관청건물·학교·기차역사 등을 많은 외국건축가들에게 의뢰하여 국적에 따라 다양한 양식이 일본에 소개되었으나, 이 시기의 건축양식은 대부분이 영국의 고딕이나 혹은 르네상스 양식이었고 사용된 재료는 벽돌과 돌이었다.<sup>3)</sup> 당초 근대 서구건축은 외국인 건축가들과 건축교육자들의 초빙을 통해 일본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엽에 훈련된 근대 일본건축의 제 1세대들은 유럽과 미국건축의 새로운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이들을 통해 서구건축의 동향이 신속하게 도입되었다.<sup>4)</sup>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고무되어 몇몇 일본의 젊은 건축가들은 유학을 통해 르 꼬르뷔제나 W.그로피우스의 건축을 직접 배웠으며, 급기야 일본건축 속에 모던건축과 바우하우스의 많은 원칙들을 실천하게 된다.<sup>5)</sup> 과거 일본의 건축·관화·문양 등은 V.고호의 미술이나 아르누보의 C.R. 맥킨토쉬와 F.L.라이트 등의 건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서 얼마간 활동했던 B.타우트, 르 꼬르뷔제 등과, 특히 A.레이몬드는 일본건축의 현대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sup>6)</sup>

### 2.2. 일본의 근대건축과 Metabolism

1950년 한국동란 이후 일본건축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능주의가 팽배하면서 근대건축의 전성기<sup>7)</sup>를 이루나, 기능을 앞세운 보편적인

동질의 공간은 전통적 공간개념과 맥락의 단절을 가져오고, 자연과의 조화와 변화를 느끼려는 일본인의 정서와 미의식에 부합되지 못하였다. 또한 '성장과 변화'라는 이슈로 등장한 메타볼리즘(Metabolism)<sup>8)</sup>은 기술<sup>9)</sup>을 앞세운 건축을 만들어 문화적 맥락의 단절을 가져온다. 1960년 동경에서 개최된 '세계디자인회의'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통일된 주제를 제기하기 위해 "나의 작품, 나의 이미지"라는 과제를 참가자에게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때 카와조에 노보루(川添登)·키쇼 쿠로가와(黒川紀章) 및 산업디자인 대표들이 모여 의견을 제시하던 중 가장 강력하게 대두한 것이 키요노리 키쿠다케(菊竹清訓)의 '교환의 이론'이었다. 메타볼리즘은 '신진대사(Mujo)'라는 개념을 갖는데, 이것은 계절의 변화·나이가 드는 것 등과 같은 생의 수많은 변화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에 대한 일본인들의 경이로부터 생겨났다. '메타볼리즘'이란 용어는 소우주의 동적인 변화를 은유한다는 개념으로서, 일본건축에서의 구성적·환경적 전통에 관한 토속적인 자연 형태에 의해 기능주의를 적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불교적 우주관인 '우연'의 개념을 무시하고 고도의 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그 전체는 비사회학적 의미가 부여되어 도시 스케일상의 모순을 표현하였다.

7) 기능적인 근대건축이 일본의 공간개념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직적 공간의 도입; 보통 인접공간의 부가 과정에 의해 증대되는 일본의 공간은, 전통적 공간개념에 새로운 수직적 개념을 융합하게 된다. 지정학적 디자인 요소들을 연출하는 빛 또는 공간 등이 수직적 초점을 이루게 된다. ② 지층에 개방된 공간의 도입; '릿마루(縁側: えんかわ)' 공간에 수반되는 전통적이고 융통적인 공간과 부합되어, 거주자는 내부로부터 외부와 접촉이 가능한 내·외부 공간으로 유도된다. 르 꼬르뷔제에 고무된 필로티(Piloti)의 사용은 활용성·기능·심미적 목적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용되고, 발코니는 지층에 개방된 공간이 수직적 공간에 더해진 것이다. ③ 실의 기능분화; 다다미(たたみ)·창호문의 다용도 체계에서 벗어나면서 공간의 융통성은 사라지고 고정된 기능을 갖게된다. 주택계획의 양상은 세분화되고 공간의 기능적인 사용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이된다. 중심공간인 천장이 높은 '이마(居間)' 공간은 1917년 유행하던 응접실·좌식실 등의 기능이 분리된 공간에서 발전한 것으로 다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이는 전통공간의 융통성과 기능주의 공간이 절충된 형태이다.

8) Metabolism을 전개시킨 주요 구성원들은 카와조에, 키쿠다케, 쿠로카와, 마키, 오다카 마사토(大高正人)로 구성되었다. 이소자키는 정식 구성원은 아니었고, 탄계는 배후에서 후원하였다. 1960년 초 Y.프리드만의 '움직이는 건축' A.V.아이코의 '성장하는 건축' L.간의 '주공간과 보조공간' 아키텍처의 'Plug in City'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이들은 가장 완벽한 신진대사 시스템을 지닌 것이 생명체라는데 착안하여, 그것을 도시와 건축에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디자인의 착상단계에 있어 조각을 자극하는 모멘트가 되는 개념으로 군화(엔트로피·단위·확률·다양성), 결합(콘넥터·중합·공존·매개·교환·중복·절단의 개념), 성장(증식·교환·분열·파괴의 개념), 효율(속도·밀도의 개념), 자극(촉매의 개념), 유동(정보유통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김문덕, 現代建築의 Metabolism의 影響에 관한 研究, 홍익대 석론, 1981  
9) 1970년 오사카만국박람회에서 '다카라 파빌리온'과 '도시바관'을 설계한 것은 쿠로카와로서, 이해하기 쉬운 전위적 건축 표현·사회전체의 미래상 제시를 통해 기술지상주의를 추구하였다. 이소자키는 만국박람회장의 중심적 기간 시설인 '축제광장'의 여러 장치를 설계했다. 이것의 이미지는 영국 아키텍처에서의 차용이라기 보다는, 60년대 일본 메타볼리즘의 이미지 연장 선상에 있었다. 메타볼리즘→아키텍처→오사카만국박람회→포피우센터로 기술표현 주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러한 국제적인 건축의 상호영향 테두리 속에서 일본건축은 확실하게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윤광진, 日本現代建築의 樣式分類에 관한 研究, 연세대 석론, 1985, pp.14~15  
4) 1905년쯤 고딕·르네상스·세제션의 건축양식들을 채용하였던 일본은, 근대 이전부터 서방건축의 발전에 점차 빠른 반응을 보였다. 서방의 세제션 운동(1897)→일본 세제션 건축학회 발족(1920), 오거스트 페레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1906)→동경공대의 철근콘크리트 강의(1906), 독일공작연맹 발족(1911)→일본공작연맹 발족(1936), 일본 제국의사당 건축양식 시비(1915), 건축가/기사 이원론 시비(1915), 독일 바우하우스 설립(1919)→일본의 바우하우스 기능주의 소개(1920), 월터 그로피우스의 저서 '국제건축' 간행(1925)→일본 '신건축' 및 '국제건축' 잡지 발행, 인터내셔널 건축회 발족(1927), 근대 건축 국제회의의 발족(1928)→일본에 르 꼬르뷔제 작품소개(1929), 일본인의 바우하우스 유학 및 르 꼬르뷔제 사사(1931) 등 서구건축의 동향이 신속히 도입되었다.  
조영무, 日本近代建築의 發展, 空間, 1980, 7, p37  
5) 츠지우라 카메키(土浦イ成)가 F.L.라이트에게 사사 받았으며, 쿠니오 마에카와(前川國男)가 르 꼬르뷔제에게, 분조 야마구치(山口文象)가 W.그로피우스에게, 山脇巖이 미스(Mies)에게 배운 바가 있다고 한다.  
6) F.L.라이트는 일본에서 '동경제국호텔, 1922'만을 A.레이몬드의 공동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6개의 주택을 포함한 12개의 작품을 6년 동안에 남기었다. 또한 그의 조수 A.레이몬드를 계속 머무르게 하여 '리더스 다이제스트 도쿄지사, 1951'와 같은 걸작을 남기게 했다. 동경 우에노 공원 근처에는 아라타 이소자키의 초기작품에 영향을 주었던 르 꼬르뷔제가 쿠니오 마에카와·요시무라 준조와 함께 설계한 '국립서양미술관, 1959'이 자리한다.  
김문덕, 日本現代建築 紀行, 건축사, 1991, 6

메타볼리즘의 개념으로 디자인된 도시계획<sup>10)</sup>은 겐조 단케(丹下健三)의 '동경계획, 1960'이고, 건축물은 도심지의 세컨드 하우스와 호텔기능을 갖춘 쿠로카와의 '나카진 캡슐타워빌딩, 1972'이다. 이외에도 단계의 '야마나시 문화회관, 1961' '시즈오카 신문·방송 동경지사, 1967' '오사카 만국박람회 마스터플랜, 1970' 쿠로카와의 '오사카 소니타워빌딩, 1976' '국립민족학박물관, 1977' 키쿠다케의 '스카이하우스, 1958' '오키나와 해양박물관 아쿠아폴리스, 1975'등을 거론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건축은 과거에 무시했던 전통·문화·역사적 유산에 의존한 건축 그 자체에 내재된 표현성·상징성·의미성에 관한 가능성의 연구를 시작함으로써, 내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내부화 과정'은 좀 더 복잡하고 예술적인데, 일본 건축가들은 각각의 '자각'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포스트 메타볼리스트'<sup>11)</sup>라고 불리는 젊은 건축가들은 사회를 변형하거나 개혁하려고 집착하기보다는 그 사회의 다양성·복합성을 수용하고, 주어진 도시의 현재상황에 대한 수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 그들은 실제로 건물을 설계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발전시키고, 각각의 이론과 도시 이미지를 나름대로 형성하고 있다.

### 2.3. 일본현대건축의 동향

일본현대건축의 시작을 통상적인 관점에서 1960년으로 본다면<sup>12)</sup>, 이 시기를 전후한 시대정신의 변화는 석유위기 이전부터, 근대건축에 대한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 형태로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일본의 현대건축가들은 근대건축과 메타볼리즘이 단절시킨 문화적 맥락을 회복하기 위해, 건축 내면의 사상이나 주체적 고유함과 지역성

10) 메타볼리즘 그룹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단계가 1960년에 발표하였던 '동경계획'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젊은 건축가들이 제시한 수많은 도시 이미지를 유발시킨 원천이었다. 키쿠다케의 '해상도시' 오타카 마사토의 '인공도시계획' 쿠로카와의 '동경계획 1961 헬릭스' 이소자키의 '공중도시' 마키의 '군조형' 등 1960년대 초반에 일본 건축가들은 매우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기술력에 의한 도시성장을 대담하게 시도한 도시 미래상을 그려내었다.

鈴木傳之, 日本의 現代建築, 탐구문화사, 1987

11) 많은 이념들 간의 공생적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각자가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가지고 자기의 형태를 시도하고 있다. 건축가들은 급진적·인상적·개념적·문맥적인 것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이러한 경향의 Post Metabolist로는 오사무 이시아미(石山修武), 이시이 카즈히로(石井和紘), 안도 타다오, 키지마 야스후미(木島安史), 타케후미 아이다(相田武文), 모즈나 키코(毛綱毅曠), 이토 토요(伊東豊雄), 와타나베 토요카즈(渡邊豊和), Team Zoo(象設計集團), 미노루 타케야마(竹山實), 히로시 하라(原廣司), 히로미 후지이(藤井博邑) 등이다.

12) 건축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현대건축의 기점을 村松貞次郎는 1950년, 스즈키 히로유키(鈴木傳之)는 1955년으로 보고 있으며, 순수 역사적 측면에서 藤原彰는 1945년의 패전으로 보고 있으나, 서구인인 R.보이드나 B.보그나는 메타볼리즘의 생성계가 된 1960년을 그 기점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메타볼리즘 운동이 서구에서 일본현대건축을 강하게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히로유키의 분류를 통해 구분해 보면, ①황금전성기(1955~1964); 1960년 메타볼리즘의 생성과 1964년의 도쿄올림픽이 일본현대건축의 기록체가 되었던 시기, ②모랄의 시대(1965~1973); 1970년 오사카만국박람회에 의한 메타볼리즘 이론의 적용시기, ③건축의 기술성숙화(1974~1984); 포스트 모던, 하이테크, 지역주의 등 다양한 입장에서 의 활성화 시기로 거론하고 있다.

김문덕, 韓·日現代建築의 表現傾向에 관한 研究, 홍익대 박론, 1993, pp.97-99

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의 전통적 공간개념의 현대적인 수용양상으로 나타난다. 많은 건축가들이 현재 일본 건설기술의 수준을 어떻게 건축표현에 결부시키는가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문화창조를 건축으로부터 이끌어내려는 시도인 것이다.

1970년대에 건축가가 스스로의 비전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도시성과 중층성(重層性)으로써 건물 구조 가운데에 보이게 하는 것이 많았다. 특히 젊은 세대의 건축가들은 현실에 대한 비평으로서, 건축활동의 신장문화에 따른 소규모의 건축설계에 집중하게 되었다. 모즈나 키코(毛綱毅曠)의 '반주기(反住器), 1972' 이시이 카즈히로(石井和紘)의 '54개의 창, 1975' 이토 토요(伊東豊雄)의 '나카노 주택, 1976' 등 극히 의도적인 설계방법을 선택한 작품이 나타나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또한 1980년대 이전에 탈근대(脫近代)라고 하는 건축이 등장하는데, 역사성·양식성을 자유롭게 해석한 표현을 가지고 토속성·통속성·유희성이 드러나 있었으며, 대표적인 것이 미노루 타케야마(竹山實)의 '이치만칸(一番館), 1969'이다. 무라노 토고(村野藤吾)의 '타카나와 프린스호텔 신관, 1982'과 아라타 이소자키(磯崎新)의 '츠쿠바 센터빌딩, 1983'에서는 서구적인 역사적 모티브·선례가 많이 참조되어 비평적으로 채용됐다. 그리고 다케후미 아이다(相田武文)의 조형성은 완전한 유희규칙에 지배되어 있는데, 역사나 문화적 맥락의 조작 없이 최초부터 가공의 이야기를 구축하여 출발시킨다.

일본건축이 현대화하고 있는 것도 서구적 전통에 속박 당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것은 일본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팀주(Team Zoo; 象設計集團)와 다카마쓰 신(高松伸)의 경우에는 근대건축의 보편성·객관성·비인칭성을 전부 뒤집어 놓은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미적 기술주의 혹은 하이테크 미학의 건축이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작으로는 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일본 건축계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계의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 신관, 1983'을 들 수 있다. 안도 타다오(安藤忠雄)는 콘크리트의 표현을 복잡한 도시환경에 대한 내향적인 공간구축과 대칭적인 구성에 의해서 그 강함을 표현한 '스미요시 주택, 1976'으로 일약 유명해졌다.<sup>13)</sup> '다이칸산 김합주거, 1978'와 '게이오대학 신도서관, 1983' 등의 작품을 설계한 후미히코 마키(横文彦)도 종래의 근대건축과는 다른 심미적 구성을 작품에 표현하고 있다. 그의 건물에는 다케후미의 '블록 하우스 3호, 1981'과는 다른 하이테크한 구조미학의 즐거움이 있다. 단계와 마키의 경우는 조형적 재능을 기존의 건설수준 위로 상승시킨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안도와 오사무 이시아미(石山修武) 등은 작은 스케일 속에서 자신들이 주도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13) 1960년대의 마에카와로 대표되는 브루탈리즘 계보에 어느 정도 연결되는 안도의 작품에는, 콘크리트를 극한까지 정도(精度) 높은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 있다. 콘크리트 표면을 그대로 보이면서 강함·섬세함, 그리고 일종의 서정성조차 느낄 수 있게 한다. 그의 매력은 작품자체의 형태적 강력함과 동시에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건축가의 자세에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전후의 일본현대건축가들은 서구의 고전적 질서와 형이상학을 근거로 한 도구적 합리성과 논리적 이성중심의 '해체' 과정에 있다. 또 하나의 세기말로서 일본건축은 후기 구조주의적 사고·해체주의적 비평과 일본의 동양적 정신상태, 그리고 조작된 소비지향적 문화로부터 근거리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아츠시 키타가와라(北川原温)가 동경에 세운 '라이스(Rise), 1986'란 특이한 형태의 상업건축, 히로미 후지이(藤井博巳)의 '우시마도 국제예술제 센터, 1985', 야즈카 하지메(八東はしめ)가 설계한 가벽의 구조물과 다양한 원색의 색상이 과감하게 도입된 '안젤로 탈라찌, 1987', 시노하라 카즈오(篠原一男)의 '동경공업대학 백주년기념관, 1988', 와타나베 마코토(渡邊誠)가 설계한 상부가 기계화된 끈층의 모습을 띤 '아오야마 제도전문학교 1호관, 1990', 다카하시 아키코(高橋晶子)의 '사카모토 료마 기념관, 1992' 등이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 3. 일본현대건축의 지역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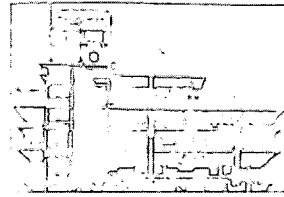
#### 3.1. 일본현대건축의 공통적 특성

토쿄와 교토처럼, 현대성과 전통성의 교차로서 일본 디자인 전반에 공존하는 대조가 있다. 친근함이 있는가 하면 강한 충동이 표현되고, 전통과 급진이 공존하며, 미학적 추구와 호사스런 욕구가 병행한다. 일본의 디자인은 동·서양과 과거·현재의 선명한 절충을 기도하고 있으며, 재화와 독자적인 미적 체험으로 유도한다. 이소자키, 안도, 마키 등과 같은 세계적인 일본건축가들로 인해 과거 서양으로부터의 중압감에서 벗어난 일본은, 외부 영역에 있는 요소들의 구속 개념에서 탈피하여 모든 디자인 영역에서 다원적·절충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따라서 다양한 일본현대건축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정리·분석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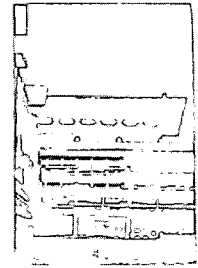
#### 3.2. 일본현대건축의 지역적 특성

본래 북구유럽(특히 핀란드의 A.알토)에서 발생한 지역주의(地域主義)는 개인성을 존중하고,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감정적·물질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지역적 성격은 진정한 건축이라면 필수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이다. 건축물은 모두 어떤 구체적인 특수한 성질을 구현해야만 한다. 또한 역사적 건축물들은 대개 일반적인 '양식'에 속하고 있으면서도 분명한 지역적 향취를 지니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인간에게 귀속감과 보호감을 부여한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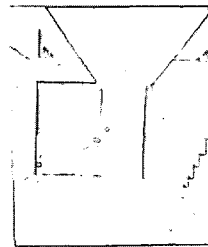
따라서 일본현대건축의 지역주의는 일본의 사회·문화·예술전반과, 기후·지형 등을 포함하는 자연적 여건에서 발생한 전통·관습,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나타난 전통건축<sup>16)</sup>과 그 개념을 살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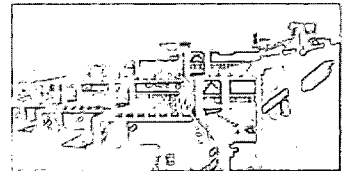
<그림 1> 키쿠다케, 도쿄엔호텔, 1964



<그림 2> 오타니 사치오, 교토국제회의장,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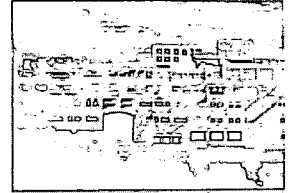
<그림 3> 안도,스미요시주택,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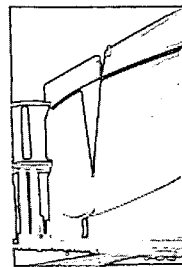
<그림 4> Team Zoo,나고시청사,1981



<그림 5> 하세카와,소난다이문화센터,1989



<그림 6> 하라,아마토인터네셔널,1987



<그림 8> 모즈나 키코,쿠시로 마쉬랜드자료관,1984

<그림 7> 오사무 이시야마,쇼하치미술관,1984

봄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건축의 지역적 특성을 추론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전통건축 개념을 우선 해서 살펴보고, 앞에서 파악한 일본현대건축의 '공통적 특성'과 비교하여 일본현대건축의 '지역적 특성'을 고찰해 보겠다.

일본의 전통건축에서 공간<sup>17)</sup>은 하나의 물체로 떨어진 것이 아닌

성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일본인 표준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다다미는 대개 1818 mm로 1間을 삼는 개념으로 가마쿠라(鎌倉; 1185~1336)시대에 출현하여 무로마치(室町; 1333~1503)시대에 주택전체에 설치되기 시작해, 18세기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한편으로 교유의 주거개념은 언제나 개방적으로 서구의 문화요소를 수용하면서도 독특하게 일본적인 것이 늘 있어왔는데, 전통적인 주거의식에서 현대적인 주거의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화풍(和風)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17)일본에서의 공간이란 시·공상의 두 점 또는 두 선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의 경험이 더해지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窒'이란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비어있는 것·하늘·인간 위의 넓은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間'이란 기둥과 기둥사이·면적·시간의 간격·사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Heinrich Engel, The Japanese House, C.H.Tuttle Co, 1964, p.233

14)김병윤, 모더니즘의 새 유형으로서 - 일본건축, 꾸뎀, 1987, 10

15)C.N.Schulz, Roots of Modern Architecture, 공간예술사, 1992, p.125

16)일본인들은 전통건축의 공간구성요소인 스키야(數寄屋), 다다미(たたみ), 정원(借景手法), 뒷마루(縁:えん), 창고(庫:くら) 등 그들의 주거의식을 반영한 공간을 계승 발전시켜 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다다미는 일본주택 구

<표 1> 일본현대건축의 공통적 특성

분류	건축적 특성	건축가
질층적 특성	일본에 어떤 문화적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것은 일본역사에서 다른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수용형태에서 나타난다. 일본문화의 여러 면에서 나타난 신(新· 귀舊) 혹은 내·외의 요소가 서로 병존하는 중층성도 이와 같이 특이한 변형형태의 거듭되는 반복 속에서 점차로 조성되어 온 것이다. ①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는 "일본문화의 수사(修辭)에는 외부영향을 흡수하고 완전히 해주는 확고한 절충주의가 있다고 보고, 명확함에서 함축적인 데까지 서로 다른 종류의 기호를 강조하는 수사의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일본에는 포스트 모던과 레이트 모던 건축 사이의 기본적인 모순을 각각 수용하는 절충적이고 포용적인 철학이 성행하고 있다고 본다. ② 키쇼 쿠로카와는 일본의 문화를 흑백을 쓰지 않는 애매한 바탕 위의 '그레이(Gray) 문화'라고 부르고, 일본문화의 특징을 비영속성의 용인과 변화의 필요성, 일시적인 문화와 사상을 공생적으로 결합하는 것, 접하고 있는 요소사이의 매개적인 공간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일본문화의 절충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③ 리키 미야케(三宅理一)는 일본에서 모든 형태의 디자인과 절충주의를 법칙으로 본다. 일본현대건축은 다원적인 절충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의적이고 독자적인 절충방식을 꾀해 '감성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아라타 이소자키, 키쇼 쿠로카와
다원적 특성	일본현대건축가들은 '자각'이라는 공동된 근원을 토대로 과학기술의 직접적 발달을 통해 파생된 개념을 회의적으로 보고, 건축이론이 기술문명의 신봉을 따라하고, 유사한 가치체리의 공생적 입장을 취하는 어떤 구조 내에서 재건시키려 하고, 기술기치에 대한 초연한 자세 속에서 기술사용을 열망하는 배반적 특성, 건축가가 종합적 도시의 비전을 수행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현실 사회로의 접근 시도, 일본문화 전통의 맥락 내에서 형태의 중요성에 대한 중시라는 다원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에 대한 건축적 사례로는, ① 안도의 '로코 집합주택,1983' 이후로 다종다양한 집합주택의 대두와 무라노 토고의 전통을 이어받은 화풍(和風)건축의 활성화, 포스트 모던건축의 수법에 영향을 받은 양식건축의 보존과 재생, 목구조의 복원,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걸맞는 고도 정보화된 사무실 공간을 목표로 하는 인텔리전트(Intelligent) 빌딩 시대로의 도약, 대규모 도시 재개발 등이 1980년대 이후의 건축 다원적 현상을 표출하고 있다. ② 이소자키의 '초쿠바센터빌딩,1983'에서 보여진 르네상스·매너리즘·18~19세기·현대라는 포스트 모던적 각 시대의 건축수법에 의한 인용·중첩·반전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이 건물은 문화를 소비한다고 하는 사회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한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건축수법의 인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라타 이소자키, 키쇼 쿠로카와
서구적인 모티브	토속성, 통속적인 상업건축, 유희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에 의해 건축이 갖는 문화적 의미와 이미지가 재인식되어 역사적 양식을 자유롭게 해석한 표현을 갖게 된다. 진위적 극단주의의 종말과 전통에로의 부분적 복귀 그리고 대중과의 대화를 통해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되었다. ① 근대건축이 야기한 도시환경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상의 차이는 보이지만 도시·환경·문화·역사와의 연속적인 맥락을 중시하고 있다. ② 근대건축에서 무시되었던 형태와 그것이 지니는 의미·문화적 상징성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을 위해 역사와 전통적 형태를 참조함으로써 그것이 지닌 이미지·기억·연상 등을 형태표현의 주요한 조형개념으로 활용한다. ③ 역사적 형태의 창조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포섭적이고 절충적인 성격을 띠면서 토착문화·대중문화를 흡수한다. ④ 공간과 형태구성상 나타나는 수법으로는 층화(Layering)·슈퍼그래피(Supergraphic)·중첩(Superimposition) 등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와타나베 토요카츠와 같은 건축가는 복합과 비직각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토 토요의 작품은 기능과 논리성에 대한 이탈을 통해 유목민(Nomadic)적 건축개념을 묘사하고 있다.	이토 토요, 와타나베 토요카츠, 아라타 이소자키, 다카마츠 신, 이시이 카즈히로, 야이다 타케후미
일본적인 모티브	① 쿠로카와는 도시문제를 중심으로 성장과 변화의 시스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메타볼리스트 중 급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현대는 다양한 세계의 다양한 문화, 역사적인 고유성 속에서 인지작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건축가는 그것을 통하여 현대건축에 모티브를 채취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지역성을 통한 국제성의 성취를 꾀하고 있다. ② 이시이 카즈히로는 '나오시마 타운홀'에서 상업한 모습을 꾀해 다실공의 이미지를 채택하고, 비문자(飛雲閣)의 입면을 외관에 사용했다. 비대칭의 실루엣 속에 망루·당파풍·입목 등이 병치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전후 '제관양식'의 영향으로 금기시 되었던 공공건물에서 일본적 모티브의 수용이 이루어졌다. ③ Team Zoo의 '나고시청사'는 지역적 풍토주의에 기반을 둔 작품으로 기후에 맞는 '개방성'의 특징을 갖는다. 전면의 잔디광장으로부터 테라스·로비·사무실과 내외부를 연속시켜 생활환경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오키나와의 기후풍토는 연노랑형의 루버, 맨위층의 흙에 의한 단열, 바람의 길에 의한 통풍, 밤의 방열 등이 고려되었다. 또한 콘크리트·블록·흙·나무 등의 소재에 의해 뒤덮여 존재해 있는 오키나와의 질감을 반영하여 콘크리트와 블록을 주요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④ 이소자키는 분열병적 절충주의와 서구의 역사적 단편의 혼재가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⑤ 카즈히로의 건축은 대중적 Code와 Color Code의 기호화를 추구하며, ⑥ 타케후미 야이다는 De Sijl의 비대칭 방식을 쓰며, ⑦ 모즈나 키코의 작품에서는 동양적 신비의 추구와 이질성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⑧ 무라노 토고가 설계한 오사카의 '신카부키와 극장,1958'은 모모야마 시기의 모티브에 의한 전래없는 연속 박공의 디자인에서 양식적 의장을 추상화한 수법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무라노 토고, 아라타 이소자키, 다케후미 야이다, 모노노 몬타, 키쇼 쿠로카와, 이시이 카즈히로, Team Zoo
형태의 장식화	형태의 장식화는 표현적인 조각적 형태와 과장법을 사용하여 매스를 장식적 요소로 사용함으로써 근대건축의 밋밋한 외관이 이루는 권태를 벗어나고자 한다. ① 카즈오 시노하라의 문맥에 맞춘 전통의 계승을 역설하고 진보된 기술과 개념으로서 도시의 도처에 무수한 단편으로서 내포하고 있는 혼란 속에서 자의적인, 기술 표현을 추구한다. 형태의 선택과정에 하이테크놀로지 머신이 갖고 있는 기묘한 구성을 참고로 하고 있다. ② Team Zoo의 '동경자동차 전시장'은 파도치는 듯한 100m의 곡률같은 형상을 하고있다. 이 지방의 특산물인 조롱박의 모양이나 그것을 기르는 비닐하우스의 모양으로 부터 구조와 지붕의 파도치는 듯한 형태를 연구한 것으로, 표현적 형태를 보인다.	카즈오 시노하라, 이토 토요, 이초코 하세카와, 다카마츠 신, Team Zoo
기계미학의 추구	표면의 기계미는 'Slick Tech'의 미학으로 은빛은 은(銀), 부(富)는 윤기있는 표면이라는 2개의 윤유가 내재하고, 정밀성·기술적 완성·Black box 기술의 미스터리·비개인화·조각난 장치로서의 건물·모순어법·모호성이라는 개념들이 포함된다. 또 극단적인 형태의 본질과 반복을 통해 표면에 구조를 나타내어 시각적인 자극효과를 만든다. ① 요우쇼우 에이의 '숨쉬는 벽을 가진 주택'은 그리드에 의해 분절된 표면을 독특한 질감을 나타내는 공업 생산품 재료인 알루미늄·금속·유리를 사용했다. 그에게는 Grid 자체의 존재는 사라지고, 외부표면을 작은 부분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는 알루미늄과 유리의 투명성으로 표면의 기계미를 만들고 분절된 그리드에 의해 장식적 효과를 나타낸다. ② 쿠로카와의 '와코쿠 코지마치 빌딩'에서 외관은 알루미늄·네오파리에·유리의 구성으로 경쾌한 재질감을 가지고 있다. 알루미늄 패널과 네오파리에서 직물을 짜듯이 서로 짜맞추고 또한 알루미늄 테두리의 일부에 미묘한 음영을 취하였다. 그는 이 건축물이 동서양 각각의 문화·문맥 중에서 모든 기호를 사용한 우주선이라고 표현한다.	요우쇼우 에이, 키쇼 쿠로카와, 이초코 하세카와, 다카마츠 신, 이시이 카즈히로
해체주의적 경향	일본에서는 해체보다는 가설(假設)이란 개념으로 접근한 경우를 보게되는데, 가설이란 개념은 해체적 현상을 주대상으로 하지만 '포피두 센터'나 '로이드 보회회사 빌딩'같은 하이테크 건축의 시각적 가설현상도 그 대상에 포함시킨 포괄적 현상을 해설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근대합리주의의 종말이라는 미래에 대한 비관론적 시각이 80년대 건축가들의 표현행위로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F.게리가 코오베에 설계한 '피쉬덴스,1987'와 C.힘멜브라우가 동경에 설계한 '코노산데,1987'라는 의상점 등은 외국의 해체주의 건축가에 의해 일본에 실현된 사례이다. 또한 일본건축가인 아츠시 키타가와와 동경에 세운 'Rise,1986'란 상업건축은 상당히 이질적이고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아츠카 하지메가 설계한 '안젤로 탈라찌,1987'는 가벼운 구조물에 다양한 흰색의 칼라가 과감하게 도입된 작품이다. 그리고 와타나베 마코토가 설계한 '아오야마 제도전문학교 1호관,1990'은 곤충의 형태를 기계화시킨 특이한 조형성을 갖는 건축이다. 그 외에도 카즈오 시노하라의 '동경공업대학 백주년기념관,1988' 히로미 후지이의 '우시마도 국제예술센터,1985' 등이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스즈키 로지, 아츠시 키타가와, 아카라 코미야마, 히로미 후지이, 카즈오 시노하라, 다카마츠 신, 타카하시 아키코
근대건축의 지속	1950년대의 논쟁은 겉조 단계의 일본 근대주의가 시작됨을 표시해 준다. 그의 세대는 일본 모더니즘의 특별한 진전을 추구하였는데, 일본 모더니즘이란 젊은 아방가르드 건축가들의 에너지를 흡수하였고, 그 에너지를 국가적 차원의 건설에 배정하였으며, 가끔 실제적 상황을 향한 그들의 비판적 정신을 삭감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말 반근대주의 운동이 일본에서 시작하여, 1970년 오사카 박람회이후 일본의 근대건축은 종말을 고하고 현대건축의 전체 디자인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양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경향에 해당하는 건축가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안도 타다오 설계된 외관과 정교한 비례를 사용하며, 히로미 후지이는 근대적 형태에 그리드를 가미하여 이탈리아의 슈퍼스튜디오(Superstudio)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히로시 하라는 균질공간 및 유공체의 공간을 표현하고 있으며, 아즈마 타카미치는 틸세(Sill)의 공간을 구사하고 있다.	켄조 단케, 후미히코 미키, 오시오 타니쿠치, 다케나카 Corp., 타다오 안도, 히로미 후지이

문화·전통·풍속과 관련된 것이다. 서구인들이 공간을 마치 단도(神道)와 마찬가지로 공간은 자연에 근거하고 건축물이라기 보다 순환 물체로 인식한 반면, 일본에서의 공간은 '우주'를 뜻했으며 신 땅으로 표현되는 것이었다. 또한 공간은 사물의 구성물체로서 상징

적 의미나 성격으로 다루어져 물리적인 영구성은 중요시되지 않는다.<sup>18)</sup> 그리고 동양인들은 사람과 대등하게 서있는 물체보다 빈 마당을 선호하여 건물의 가치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물체성에서 찾기보다, 경험이나 추상적인 본질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일본에서의 공간은 동양의 공간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일본인들은 미를 성취하기 위해 음식·의복·회화·건축 등을 만들어 왔으므로, 그들의 미의식을 알아보는 것은 곧바로 건축공간에의 특성을 엿보게 해준다.

일본의 전통적 공간개념은 자연을 끌어넣고 그것의 일부에 동화되는 것에 의하여 성립된다. 일본인들은 자연의 사물을 통하여 공간을 느끼고, 자연승배의 전통 안에서 미적 차원을 인식한다. 그들의 '자연 친근미'는 일본식 정원문화에서 잘 보여지는데, 무로마치(室町)시대 말기에 코토에 세워진 '용안사(龍安寺) 석정(石庭)'에서와 같이,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모사를 만들려고 하여 '차경(借景)'이라는 수법을 통해 소우주로서의 자연을 표현하였다. 자연을 사랑하는 일본인들의 미의식이 전통건축 공간에 표현된 것으로는 이중성<sup>19)</sup>·연속성<sup>20)</sup>·융통성<sup>21)</sup>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은 일본의 현대건축에서 표현되고 있다. 일본의 전통건축에서 '미완성의 미'는 자연의 성장과 변화에 기초를 둔 미이다. '시부이(澁)'는 "화려하지 않고 은근한 멋이 있다"라는 뜻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이다.<sup>22)</sup> 고대 일본에서는 토착적인 공간개념을 형성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정숙의 미'인 '야미(闇)'이다. 어두움이란 뜻 뒤에는 공간 안에 감추어진 것에 대한 느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식 방의 아름다움은 음영의 변화에 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내부 깊숙이 있어 볼 수 없는 장소들은 '가미(神)'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가장 정신적인 장소를 제공하였다.<sup>23)</sup> 전후의 일본건축은 서구건축의 증압감에서 벗어나고자 전통적 공간개

념인 '스키야(數寄屋)'를 채용하였다. 그것의 개념은 최고의 건축을 향하고 그것을 지속시키려는 도전으로, 수많은 공간적·심미적 개념으로 의미가 확대되며 공간개념의 기초를 이룬다. 스키야에서 보여지는 정신은 극한까지 간소화하려는 간결의 미의식이다. 부분과 부분, 장면과 장면을 사이에 설치하여 그것을 명확히 구분 짓는 '간(間)'은, 건축뿐만 아니라 일본의 예술과 미의식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sup>24)</sup>

일본건축에 있어서 전통계승의 노력<sup>25)</sup>은 1951년을 시발점으로 하여 근대 기능주의 운동의 회의를 따르는 건축가들의 반성·신경험주의·신평토주의 등 해외 건축사조의 영향과 일본풍의 유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통적 경향의 시도가 세이케 키요시(清家謙)의 '모리주택, 1951'에서 시작되었다.<sup>26)</sup> 일본건축의 전통표현에서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일본 목조건축의 상징성에 집착하여 그것의 디테일이나 표현을 철근콘크리트나 철골로 표현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인데, 단계의 작품이 이러한 시도의 초기 사례에 속한다.<sup>27)</sup>

1960년대는 전통을 여과시키면서 세계 현대건축의 흐름을 받아들인다는 발상이 초두부터 팽배해있었다. 따라서 이세신궁(伊勢神宮)이나 계리궁(桂離宮) 등에서 존재하는 일본 전통건축의 신진대사 개념

18) Ching Yu Chang, Japanese Spatial Conception, JA, 1984, 5, p.68

19) 전통적 공간개념에서 二重性은 자연과 친화하려는 일본인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내·외부 공간사이에 애매한 경계를 만들어 상호연·침투를 가능케 하는 특성을 가진 킷마루·회랑·격자 등으로 표현되었다. 현대의 도시환경에 있어서는 외부의 빛·바람 등의 자연요소를 내부로 도입하거나, 내부와 외부사이의 애매한 경계를 가진 중간영역을 사용하여 이를 표현한다.

20) 전통적 공간개념에서 連續性은 경험적 복합체로서의 공간특성이며, '순간의 미'가 강조된 단편들이 '변화'라는 자연의 속성에 따라 진행을 하면서 전체를 이루어 가는 미완성적 특성으로, 연속된 킷마루·회유식 정원 등에 표현되었다. 일본현대건축가들은 도시의 맥락·인간의 의식을 중요시하여 내·외부 공간의 연속적인 역전, 빛에 의해 연출되는 다양한 공간의 연속, 레벨의 변화로 인한 공간 깊이의 변화 등을 사용하여 이를 표현한다.

21) 전통 공간개념에서 融通性은 자유롭게 개구부를 만드는 목구조의 특성에 의해 실내공간은 고정되지 않고, 다용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일본현대건축가들은 무성격한 균질의 공간구획을 지양하여 '변화'가 가능하고 공간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만드는 다층구조를 사용하여 이를 표현한다.

22) '시부이(澁)'는 비대칭적 감각으로 결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가 있어 공간은 시간과의 복합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순간의 미'는 변화를 느끼게 하는 '미완성의 미'와 관련이 있다. 순간의 미를 강조한 단편들은 각각 완성된 것들은 아니지만, 질서 있는 구조로 전체를 이루어 간다.

23) '야미(闇)' 즉, 어두움에 의한 '정숙의 미'는 신도(神道)건축 '혼멘(本殿)'의 공간, 다실(茶室)의 공간, 완전한 어두움 속에서 친근하고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본적인 미적 감각이다. 그리고 '정숙의 미'는 '부족함의 미'와 통한다.

24) 일본의 전통공간 특성은 '스키야(數寄屋)' 개념으로 요약된다. 스키는 '틈의 공간'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단순성의 심오함과 같이 그 의미는 표면가치에서 발생하는 피상적인 의미를 초월해서 불교나 노자에서 적극적인 방편으로 사용되어졌던 '空'과 같은 개념을 포함한다. 스키야는 다실(茶室)·다옥(茶屋)을 의미하며, 다다미가 깔리고 킷마루가 있는 다도(茶道)를 위해 설계된 벽체와 개인주택에서의 방을 의미한다. 다실은 최소한의 공간에 구축되어진 것으로 개별성을 갖기 위해 아무 물리적 요소도 없이 가장 폐쇄성을 띤 방이다.

25) 현대건축 이전에 일본건축에서 전통표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1910년대와 1930년대, 1950년대로 모두 일본의 아이덴티티가 제기된 시기와 겹쳐진다. 1910년대는 '국회의사당' 설계와 관련하여 서양풍에 기초한 일식의 의장을 절충하였으며, 구체적 전통건축의 요소로서 사찰건축에서의 인공과 기술은 동양의 것을 활용한다는 방법론이 채택되었고, 1930년대는 '코토미술관' '도쿄제실박물관'의 설계공모에서 일본이나 동양취향의 요구에 의해 표출된 제관병합식이나 제관(帝冠)양식이라고 불리는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에 기와지붕을 하는 절충주의적 방식이 채택되었다. 1950년대는 30년대의 근대주의적 관점에서의 전통이해가 기초로 되어 공간에 의한 전통과 약과 조오몽(綴文)시대(기원전 2~3세기 이전의 수천년)에 대한 관심이 건축계획에 반영되었다.

김기수, 20世紀 日本建築의 變遷, 일간건축인 POAR, 1999, 4~9월호

26) 모리(森)주택에서는 장지·마루·다다미 등 전통의 고유재료 채용에 따른 일본식 분위기의 추구하고, 천장에 은박지를 붙임으로써 반사에 의한 공간확장 효과를 시도하였다. 천장이 난간을 통해 처마 끝까지 동일선상으로 이어져 실내공간이 정원 끝까지 펼쳐지므로, 은박지에 잔디와 초목의 실내 투영효과에 따른 내외 공간의 관통은 근대건축의 성격과 왕조시대의 분위기가 혼합되었으나, 방법적으로 일관성을 지니지는 못하였다.

27) 겐조 단계는 전후에 민족주의·일본전통·근대건축과의 관계라는 과도기의 건축가들이 초월해야 될 모순과 맞부딪치면서 전통계승의 노력을 하였다. '히로시마(廣島)평화회관, 1952'에서는 寢殿造·桂離宮·伊勢神宮·正倉院 등의 전통에 기초를 두고, 철근콘크리트의 기둥·보·난간 등을 대담하게 노출시켜 전통적인 목합법(木割法)을 재현시켰으며, 꼬르뷔제의 필로티나 O. 니마이어의 '브라질 문화성' 저층부의 형태를 직접 모방하여 서구와 일본을 통일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카가와(香川)현청사, 1958'에서는 평면형식에 코어시스템, 외관에는 테라스 난간을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조립하는 방식을 취하여 일본 공장(工匠)의 전통을 표현하고 있다

<표 2> 일본현대건축의 지역적 특성

시기	건축적 경향	건축물 사례	건축적 특성	건축가
1950년대	전통계승의 노력은 근대 기능주의 운동의 회의에 따르는 건축가들의 반성·신경협주의·신평토주의 등 해외 건축사조의 영향과 日本風の 유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① 모리(森)주택, 1951 ② 히로시마(廣島)평화회관, 1952 ③ 카가와(香川)현청사, 1958 ④ 신 카부키극장, 1958	전통요소의 활용, 전통 목가구 상세의 변용	세이케 키요시(清家謙), 무라노 토고(村野藤吾), 켄조 탄게(丹下健三)
1960년대	전통을 여과시키면서 세계 현대건축의 흐름을 받아들인다는 발상이 초두부터 팽배해있었다. 따라서 이세신궁(伊勢神宮)이나 계리궁(桂離宮) 등에 존재하는 일본 전통건축의 신진대사(新陳代謝) 개념과 불교(佛敎) 윤회설(輪廻說)의 접목에 의한 전통성의 표현이라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① 중이우산의 집, 1961 ② 이즈모신사(出雲大社) 사무동, 1963 ③ 코토국제회의장, 1963 ④ 키타무리(北村) 주택, 1963 ⑤ 구 일본무도관, 1964 ⑥ 토코엔 호텔, 1964 ⑦ 도쿄올림픽 국립실내종합경기장, 1964 ⑧ 칸쿄(關唐) Tea Ceremony Room, 1965 ⑨ 쓰야마 문화센터, 1966 ⑩ 도쿄국립박물관 등양관, 1968	전통적 조화에 현대적 기술 융합, 이미지 추상에 의한 전통표현, 직설적 복고주의, 전통요소의 변용	카요노리 키쿠다케(菊竹清訓), 오타니 사치오(大谷幸夫), 켄조 탄게(丹下健三)
1970년대	탈근대의 영향을 받은 전통의 절충적 표현과 직설적 복고주의, 전통요소의 변용 등이 나타났다. 또한 모더니즘을 근간으로 하면서 전통공간의 개념을 채택하여, 노출콘크리트 마감의 단순한 상자형 매스·중정(中庭) 등을 통해 자연요소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① 쯤고(善光)사 별원(別院) 간노(願王)사, 1975 ② 나키진(今歸仁) 마을센터, 1975 ③ 카미우다(上無田) 마츠오(松尾)의 신사(神社), 1975 ④ 쿠온지(久遠寺) 보물고(寶物庫), 1976 ⑤ 스미요시(住吉)주택, 1976 ⑥ 긴재(銀座) 쿠노야, 1977 ⑦ 국립민족학박물관, 1977	전통의 절충적 표현, 직설적 복고주의, 전통요소의 변용,	무라노 토고(村野藤吾), 시라이 세이치(白井晟一), 오헤 히로시(大江宏), 타다오 안도(安藤忠雄), 키쇼 쿠로카와(黒川紀章)
1980년대	탈근대의 흐름과 복고주의적인 시대의 기류도 전통성 표현에 많은 자극을 주었으며, 일본 전통표현의 한 부류인 화풍(和風)건축이 꾸준한 영향을 주었다. 다실롱(茶室風)의 이미지를 채택하고 모모야마(桃山)시대 西本願寺의 비운각(飛雲閣) 입면을 외관에 사용한 작품도 있었으며, 모더니즘을 근간으로 하여 전통을 해석하고자 한 작품도 꾸준히 나왔다.	① 나고(名護) 시청사, 1981 ② National Noh Theater(國立能樂堂), 1983 ③ 후쿠시마 현립미술관, 1984 ④ 나오시마(直島) Town hall, 1984 ⑤ 초하치(伊豆の長八) 미술관, 1984 ⑥ 국립분라쿠(文樂) 극장, 1984 ⑦ Kushiro Marshland Museum(釧路市濕原展望資料館), 1984 ⑧ 코토국립근대미술관, 1987 ⑨ 아마토 인터내셔널, 1987 ⑩ 쇼난다이(湘南臺) 문화센터, 1989	전통형태·요소·意匠의 변용, 지역적 기후 풍토의 여건 적용, 전통의 절충적 표현, 기술적 지향과 전통의 표피적 접목, 恣意的 형태의 混成的 접근	히로시 하라(原廣司), 이츠코 하세카와(長谷川逸子), 모즈나 키코(毛綱毅曠), 오사무 이시야마(石山修武), 이시이 카즈히로(石井和紘), Team Zoo(象設計集團)
1990년대	해체주의 등의 유행적인 흐름과 산업기술에 연관된 High-tech적 형태와 소재가 깊은 영향을 주고 있어, 지역적 특성으로서의 전통적 접근은 일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건물에 한정되어 나타났다. 기술지향적인 건축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부분적으로 형태·상세·의장 등에서 전통의 표피적인 활용이 부각되었고, 과도한 형태적 유희에 편도된 절충적인 성향도 두드러진다.	① 스키야(數寄屋) 유(邑), 1990 ② 코토 무도관(武道館), 1990 ③ 오고 삼림문화교류센터, 1990 ④ 코도(出石町立弘道) 초등학교, 1991 ⑤ 세이와(清和) 분라쿠(文樂館) 극장, 1992 ⑥ Expo'92 Sevilla Japan Pavilion, 1992 ⑦ 하루카부리(Hahrukaburi), 1992 ⑧ 신 우메다(梅田) 시티(City), 1993 ⑨ 아키타시(秋田市) 체육관, 1994 ⑩ 후지(Fuji) TV, 1995 ⑪ 칸포 뮤지엄(観峯館), 1995 ⑫ 카나자와(金澤市) 이즈미노(立見泉) 도서관, 1995 ⑬ 쿠로타키(Kurotaki) 홀(Hall), 1996 ⑭ Noh Theater(能樂堂) in the Forest, 1996	기술적 지향과 전통의 표피적 접목, 전통형태·요소·意匠의 변용, 전통의 절충적 표현, 恣意的 형태의 混成的 접근, 전통적 형태의 과도한 유희	켄조 탄게(丹下健三), 신이치 오키타(岡田新一), Team Zoo(象設計集團), 와타나베 토요카즈(渡邊豊和), 히로시 하라(原廣司), 이시이 카즈히로(石井和紘), 미츠루 키류(吉柳満), 룩카쿠 키조(六角鬼丈)

과 불교 윤회설의 접목에 의한 전통성의 표현이라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또한 단계의 '국립실내종합경기장,1964'에서 보여준 현수지붕 형태를 조형기반으로 한 기능·구조·표현의 명쾌한 통합에, 신사(神社)의 지붕형태와 평면형식과 관련된 이미지 추상의 표현 등이 덧붙여졌다.

1970년대에는 직설적 복고주의·전통요소의 변용, 그리고 탈근대의 영향을 받아 일본의 전통건축과 서구 고전주의 건축의 혼용이 절충적 전통표현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더니즘을 근간으로 하면서 전통공간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안도의 노출콘크리트로 마감된 일련의 주택은 도시주택 원형 확립 이상의 것을 창출했다.

1980년대 이후는 탈근대의 흐름과 복고주의적인 시대의 기류도 전통성 표현에 많은 자극을 주었는데, 일본 전통표현의 한 부류인 화풍(和風)건축도 꾸준한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에는 전통형태의 변용·지역적 기후 풍토의 여건 적용·절충적인 전통표현과 모더니즘을 근간으로 한 작품들이 나왔다. 또한 서구의 현대건축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기술지향적 경향은 전통적 의장의 변용과 유희적인 접근, 그리고 자의적(恣意的) 형태의 혼성적(混成的) 접근도 나타났는데, 정리·분석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 4. 결론

일본건축에서의 포섭적 사세인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은 모든 건물들이 하나의 특이한 질서, 즉 반대도 조화도 일어나지 않는 '종합을 이루지 않는 집적'이라는 질서를 따라 구성된다.<sup>28)</sup> 그러므로 일본의 현대건축은 대체적으로, 절충적 특성·다원적 특성·서구적인 모티브·일본적인 모티브·기계미학의 추구·해체주의적 경향·근대건축의 지속 등으로 그 흐름을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각각의 경우가 부분적으로 서로 중첩되며 한 건축가나 한 건축물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기도 하다.

일본건축의 배경이 되는 일본인의 미의식은 대체로 자연 친근미·미완성의 미·정숙의 미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이 깊은 일본 전통건축의 구성요소는 대개 스키야(數寄屋)·다다미(たたみ)·빛마루(縁側)·창고(庫)·정원(借景手法) 등으로 구성되고, 그것의 전통공간 개념은 이중성·연속성·융통성 등이 있다. 이러한 전통건축의 구성요소나 개념은 일본현대건축이 세계화하는 데에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지역적 특성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

28)B.Bognar, The New Japanese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90, p8

세계의 건축 흐름, 특히 서구의 것과 변별되는 일본적인 것으로서의 지역적 특성은 대체적으로 다원화·절충화되어 있지만, 그것의 근간은 일본의 전통건축에 두고 있다. 일본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은, 1950~70년대에는 직설적 복고주의, 전통적 형태·요소·의장의 변용, 전통의 절충적 표현이 주를 이루며, 1980~90년대 이후에는 서구의 탈근대적 유행 흐름에 깊은 영향을 받아 기술적 지향과 전통의 표피적 접목, 그리고 자의적 형태의 혼성적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일본현대건축에서의 지역적 특성이 약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 참고문헌

1. R.Boyd, New Directions in Japanese Architecture, NY, George Braziller Inc., 1968
2. A.Drexler, Transformations in Modern Architecture, NY, MOMA, 1980
3. C.Jencks, Architecture Today, New York, H.N. Abrams Inc., 1980
4. D.Stewart, The Making of a Modern Japanese Architecture 1868 to The Present, NY, Kodansha, 1987
5. 二川幸夫, Japan - GA Document 15, A.D.A Edita Tokyo, 1987
6. B.Bognar, The New Japanese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90
7. P.Grossel, Architecture in the 20th Century, Benedikt Taschen, 1991
8. C.Jencks, 조희철 역, The New Moderns, 공간예술사, 1991
9. The Japan Architect 1990~1996, 新建築社, 東京, 1990~1996
10. 新建築, 建築 20世紀 Part 1~2, 東京, 新建築社, 1991년1월 臨時増刊
11. James Steele, Architecture Today, London, Phaidon Press, 1997
12. H.Pearman, Contemporary World Architecture, London, Phaidon Press, 1998
13. J.Zukowsky, JAPAN 2000,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Prestel, 1998
14. P.Drew, 現代建築의 第 3 世代, 민음사, 1977
15. 黒川紀章, CIAM 崩壞 以後의 現代建築의 創造, 국제, 1984
16. 鈴木傳之, 윤광진 역, 日本의 現代建築, 탐구문화사, 1987
17. 久野健, 진홍섭 역, 日本美術史, 열화당, 1990
18. 新建築, 新建築 1980-1990 (Post Modern Age), 1990
19. 민두기, 日本의 歴史, 지식산업사, 1992
20. 太田博太郎, 박언곤 역, 日本建築史, 발언, 1994
21. 윤광진, 日本現代建築의 樣式分類에 관한 研究, 연대석론, 1985
22. 백의현, 日本現代建築에서 傳統的 空間概念의 表現特性에 관한 研究, 연대석론, 1987
23. 성낙헌, 80年代 日本住宅의 空間特性에 관한 研究, 흥대석론, 1989
24. 김문덕, 韓·日現代建築의 表現傾向에 관한 研究, 흥대박론, 1993

<접수 : 2000. 1. 31>